

보도시점 : 2024. 9. 11.(수) 11:00 이후(9. 12.(목) 조간) / 배포 : 2024. 9. 11.(수)

# 14개 제작사 전기차 무상 특별안전점검

-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, 전기차에 대한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8월 8일부터 현대, 기아, 벤츠 등 전기차 업계에서 무상 특별안전점검을 추진해왔으며, 9월 9일 GM, 폴스타, 포르쉐, 스텔란티스, 토요타 등 5개사가 특별안전점검 일정을 확정\*하여 총 14개 전기차 수입·제작사가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.

\* GM(9.23~12.31), 폴스타(9.2~25.3.3), 포르쉐(10.1~12.31), 스텔란티스(9.9~완료시), 토요타(8.21~9.30)

- 국토교통부는 8월 1일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 이후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, 그간 국내외 무상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속 권고 및 지도한 바 있다.
- 이번 특별안전점검에는 국산 전기차 제작사를 비롯하여, 테슬라, BMW, 벤츠 등 국내에서 판매 중인 수입 전기차 제작사 등 총 14개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.
  - 먼저, '11년 이후 판매되어 운행 중인 전기차 약 90여개 차종에 대하여 차량의 외관 및 고전압배터리 안전 관련 항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즉각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.
  - 또한, 구 버전의 배터리 관리시스템(BMS)이 탑재된 일부 차종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하여 시스템의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.
- 아울러, 특별안전점검을 받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는 차량 중에 과거 리콜 통지를 받았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리콜 조치를 받지 못한 차량은 안전점검 시 리콜 조치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.
  - 점검대상 차량의 이용자는 제작사별 점검 일정을 확인한 후 가까운 차량 서비스센터로 예약 및 방문하여 특별안전점검과 리콜 조치를 받을 수 있다. (☞ 제작사별 점검일정 첨부 참고)

- 또한, 전기차 배터리 관리시스템(BMS)의 배터리 실시간 이상감지·경고 알림 기능이 탑재된 차량은 기능 안내도 받을 수 있다.
- 국토교통부는 ‘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’(9.6)에 따라 전기차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하여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은정 (044-201-3817)
		담당자	사무관	박정근 (044-201-4996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
**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**



**참고**

**전기차 특별안전점검 제작사별 세부일정**

제작사	대상 차종	점검 기간	비고
현대	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전 차종	'24. 8. 8. ~ 종료시까지	
기아		'24. 8. 9. ~ '24. 12. 31.	
한국지엠		'24. 9. 23. ~ '24. 12. 31.	
르노		'24. 8. 30. ~ '24. 12. 31.	
KG모빌리티		'24. 8. 16. ~ '24. 11. 15.	
테슬라		'24. 8. 30. ~ '24. 12. 31.	
BMW		'24. 8. 27. ~ '24. 10. 26.	롤스로이스, MINI 포함
벤츠		'24. 8. 14. ~ '24. 12. 31.	
폭스바겐		연중 상시 무상점검	아우디 포함
폴스타		'24. 9. 2. ~ '25. 3. 3.	
포르쉐		'24. 10. 1. ~ '24. 12. 31.	
볼보		'24. 8. 19. ~ '25. 2. 18.	
스텔란티스		'24. 9. 9. ~ 종료시까지	
토요타		'24. 8. 21. ~ '24. 9. 30.	